

조이스와 장애인: 장애학적 관점에서 『율리시스』 읽기*

최 석 무

I. 장애학과 영미문학 연구

오늘날 장애학(disability studies)이 영미문학을 연구하는 새로운 이론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동안 영미문학 연구는 사회의 소수자가 작품 속에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가를 통해 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찾아내고 이를 통해 소외된 사람들의 권익을 주장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특히, 페미니즘, 탈식민주의 이론은 여성과 피지배민의 입장을 통해 사회정의와 평등한 인간관계를 추구하려 했다. 이제 이러한 인간관계는 인종이나 젠더보다 더욱 보편적인 불평등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장애(disability)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인종이나 젠더와 달리 누구나 장애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애학은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이론이다. 데이비스(Lennard J. Davis)에 따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장애인은 가장 큰 규모의 소수자로서 인구의 15%”를 차지한다. 그리고 “65세의 노인 중에서 40%에서 80%”가 장애인이다(502). 젊은 시절에는 장애인이 아니었다 해도 나이가 들면서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2S1A5A2A01017873).

누구나 다 장애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장애는 보편적인 문제이다.

1980년 이전에 장애는 의학적인 관점에서 개인의 신체장애라는 관점에서 다루어졌다. 어떤 상황 때문에 신체장애가 생겼는지 일단 장애인이 되면 정상인과는 다른 비정상적인 육체를 가진 것으로 여겨졌다. 1990년도 중반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장애학은 “정상(normalcy)이란 개념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에 이러한 개념에 도전할 것을 주장한다(Davis 504). 정상/비정상의 이분법으로 장애/비장애인을 구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제 장애는 더 이상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현상이다. 장애인은 “사회가 그들의 필요를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장애인으로 살 수밖에 없기에” 사회가 장애에 대해 책임이 있다(Barnes and Thomas 4). 장애자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애담론은 “인종이나 젠더와 계급, 민족성(ethnicity), 섹슈얼리티처럼 문화적으로 형성”되었기에, 이 담론에 도전하고 의문을 제기해야한다(Thomson 5).

문학적 재현은 “문화적 정체성과 구분을 만들어 낸다.” 그리고 이것으로 우리는 “현재의 경험을 조직화하고 세계를 규격화한다”(Thomson 10). 이러한 재현을 통해 사회적으로 표준을 형성하는 몸은 용납되고 이에서 벗어나는 몸은 열등하다는 낙인이 찍힌다. 문학 작품에서 장애인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지를 통해 장애인의 정체성이 사회 문화적으로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사회에서 일어나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에 도전해야한다. 이것이 장애학을 이용한 영문학 연구가 필요한 이유이다. 이러한 연구는 톰슨(1997)과 미첼 및 스나이더(David T. Mitchell and Sharon L. Snyder)(2000)에 의해 시작되었고, 그들은 문학작품에서 장애인이 어떻게 재현되어 있는지 알아보고 그 문제점을 진단하였다. 그 후 최근까지 장애학을 활용한 영문학 연구가 국외에서 비교적 많이 나오고 있다. 케이선(Ato Quayson)(2007), 모스맨(Mark Mossman)(2009), 피어맨(Tory Vandeventer Pearman)(2010), 아놀릭(Ruth Bienstock Anolik)(2010), 홀(Alice Hall)(2012), 하굿(Taylor Hagood)(2014) 등이 대표적 예이다. 이 연구에서 다수가 영미소설 작품을 다루고 있다. 그렇지만 국내에서는 장애학적 관점에서 영미소설을 연구한 사례가 거의 없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장애학을 통해 영미소설을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이 분야의 연구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시작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영미소설 중에서 제임스 조이스(James Joyce)의 소설 『율리시스』(*Ulysses*)를 다루려고 한다. 최근에 조이스 작품 연구는 주로 탈식민론, 페미니

즘 관점에서 행해졌다. 탈식민론과 페미니즘은 조이스가 피지배민, 여성 등 사회에서 소외받았던 사람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조명했다. 조이스는 유색인종(특히 유대인과 흑인)과 여성을 스테레오타입으로 묘사하면서도 이러한 편견을 전복하는 기법을 사용하는 작가로 알려져 있다. 본 논문을 통해 조이스가 장애인을 재현하는 방법의 특징을 알아보고자 한다.

조이스를 장애학적 관점에서 연구한 사례가 국내외에 그리 많지 않다. 모스맨은 『1800년~1922년 아일랜드 문학에 나타난 장애, 재현 그리고 몸』(*Disability, Representation and the Body in Irish Writing, 1800~1922*)에서 아일랜드 문학에 장애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그는 결론부인 「결론: 마비의 상황, 하나의 스케치」(“Conclusion: States of Paralysis, a Sketch”)에서 조이스를 다루고 있다. “하나의 스케치”라고 명시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조이스와 장애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아니라 마비라는 주제를 장애와 연결시켜 개략적으로 조이스를 다루고 있다. 연구대상도 조이스의 『더블린 사람들』(*Dubliners*)에 한정하고 있다. 『율리시스』의 「나우시카」(“Nausicaa”) 장은 여주인공인 거티(Gerty)가 절름발이라는 사실 때문에 장애학적 관점에서 연구하기 좋은 장이다. 베드나스카(Dominika Bednarska)와 네메섹(Angela Nemecek)이 이 장을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율리시스』 전체에서 장애자가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조이스가 남녀 장애자를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사회 문화적 편견을 수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편견에 도전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알아보겠다.

II. 『율리시스』와 장애학

『율리시스』는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작품이기에 장애학적 관점으로 읽기 적합한 소설이다. 데이비스는 두문자어(acronym)인 TAB (Temporarily Able-Bodied)를 사용하면서 우리 몸이 “한시적으로 건강한 상태”임을 역설한다. 그에 따르면, “정상이라는 상태는 불안정한 기반에 놓여 있고,” “장애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보편적인 상태”이다(502). 조이스는 초기 작품에서 건강했던 사람을 『율리시스』에 장애인으로 등장시켜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덴티 부인(Mrs. Dante)이 좋은 예이다. 그녀는 『젊은 예술가의 초상』(*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의 크리스마스 파티장면에 등장하는 건장한 여성으로 파넬(Parnell)을 지지하는 데덜러스씨(Mr. Dedalus)와 케이시씨(Mr. Casey)와 험악하게 싸운다. 그렇지만 『율리시스』에서는 “환자용 휠체어”(U 17.489-90)를 타고 있고 “반응증추진경에 문제가 있고 카타르성 귀먹음이 막 시작된”(U 17.505-6) 장애인으로 등장한다. 또한 조이스는 『율리시스』에서 사람은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보인다. 데니스(Denis)가 좋은 예이다. 브린부인(Mrs. Breen)이 남편 데니스에 대해 하는 말은 우리 몸이 TAB 상태임을 상기시킨다. 그녀는 “U. P: up”(U 8.258)이라고 쓰인 카드를 받은 남편이 카드 발신인을 찾아 고발하겠다고 하자, 남편이 “언젠가는 [파렐]같은 정신병자가 될 것이다”(U 8.304)라고 말한다. 이러한 장애의 유동성은 “더 견고한 다른 소수자의 정체성인 여성성(femaleness), 흑인성(blackness), 또는 소수 민족 정체성과 같은 것보다 정상인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더욱 위협적”이다(Thomson 14). 다른 정체성과 달리 장애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몸의 상태이기 때문이다.

『율리시스』는 장애인이 많이 등장하는 작품으로 장애학적 관점으로 읽기 적합한 소설이다. 이 작품에서 장애인은 흔히 “예술작품의 여백에 등장하는 단순한 인물이거나 기이한 존재”가 아니다(Thomson 9). 사실 주인공 블룸(Bloom)도 10년간 아내와 부부관계를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성불구자”(U 15.3127)이다. 주인공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은 조이스가 장애인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블룸의 장애는 외관상 드러나지 않는 장애라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주로 다루는 외관상 증상이 확실히 들어나는 다른 장애인과 차이가 있다. 『율리시스』에는 중증 장애인이 다수 등장하다.

조이스는 작가들이 흔히 그런 것처럼, 문제가 있는 인물을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묘사한다. 즉, 은유로서의 장애이다. 장애를 은유로 사용하는 것은 “무해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가장 노골적이고 악의적 형태의 고정관념을 만드는 작업”이다(Mitchell and Snyder 18). 조이스는 『더블린 사람들』에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마비된 인물을 그리면서 마비라는 장애의 개념을 사용한다. 마비는 조이스가 진단한 아일랜드의 문제인데, 아일랜드 사람들은 흔히 육체적으로도 마비된 인물로 등장한다. 『자매들』(“The Sisters”)에 등장하는 중풍에 걸린 신부가 좋은 예이다. 조이스는 『율리시스』에서 한층 복잡하고 정교하게 은유로서의 장애를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조이스는 아일랜드의 맹목적 애국자를 비판하기 위해 시각장애

인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 『키클롭스』(“Cyclops”) 장애 나오는 국수주의자인 시티즌(citizen)은 호머(Homer)의 『오딧세이』(Odyssey)에 등장하는 외눈박이 거인인 키클롭스 거인에 대응되는 인물이다. 조이스의 이러한 기법 때문에 시티즌은 두 눈을 가진 인물이지만 키클롭스처럼 외눈을 가졌다고 독자는 현혹된다. 조이스는 맹목적인 민족주의(blind nationalism)를 주장하는 사람이 한쪽 눈이 먼(blind) 인물이라는 인상을 주면서 자신의 논리를 강화한다. 『사이렌』(“Sirens”) 장애에서 애국적 노래에 등장하는 크라피 보이(Croppy Boy)도 맹목적인 민족주의자로서 묘사되어 있다. 그는 영국 군인이 신부로 가장하고 있는 것을 몰라, 그에게 죽임을 당한다. 조이스는 크라피 보이를 피아노 조율사와 병치시키는 기법을 사용한다. 즉, “한 젊은이가 외로운 오몬드(Ormond) 홀에 들어왔다”(U 11.1273)라는 피아노 조율사의 행동은 애국적 노래에서 “젊은이가 텅빈 홀에 들어왔다”(Gifford & Seidman 293)는 크라피 보이의 행동을 상기하게 구성하여, 독자는 두 인물이 같은 인물인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 맹목적인 국수주의자를 비판하기 위해 시각장애인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은 평등, 정의의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러한 비유는 시각 장애인을 폄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 밖에도 조이스는 “blind”라는 시각 장애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예를 들어 맹목적 신앙(blind faith)(U 5.367), 맹목적 발정(blind rut)(U 9.859) 등이 있다.

홍등가를 배경으로 하는 『키르케』(“Circe”) 장애는 많은 장애인이 등장한다. 다른 장애와 달리 희곡형식으로 이루어진 이 장은 일종의 프리크 쇼(freak show, 기이한 것을 보여주는 공연)라고 할 정도로 다양한 기형을 가진 인물이 등장한다. 『키르케』 장애 이전에 등장했던 장애인인 거티, 패트(Pat), 외다리 수병, 피아노 조율사 등이 장애가 과장되게 묘사된 채 다시 등장한다. 또한 홍등가에 거주하는 사람들 다수가 다양한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묘사된다. “왜소한 남녀들”(U 15.5), “귀 먹은 병어리”(U 15.14), “난쟁이 여인”(U 15.25), “나이 먹은 난쟁이”(U 15.28), “무릎이 꾸부정한 아이”(U 15.33), “팔이 없는 두 사내”(U 15.581), “중풍 걸린 노병”(U 15.1608), “절름발이 남녀들”(U 1614), “절뚝거리며, 등이 굽은 채, 움푹 들어간 이마와 둥글납작한 코를 가진 도깨비”(U 15.2150-52), “삼쌍둥이”(U 15.2512), “일곱 유인원 같은 난쟁이 복사”(U 15.2656) 등이 있다.

홍등가에 장애인이 많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계층과 장애의 관점에서 볼 수 있다. “장애인들은 낮은 사회 경제학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낮은 위치는 장애를 유

발하는 조건을 야기하는 상태와 관련이 있다”(Heyman et al. 182). 장애인들은 일 자리를 쉽게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의 최하층을 차지한다. 조이스는 많은 수의 장애인을 홍등가 장면에 보여주면서 장애인의 궁핍한 현실을 보여준다. 다른 한편으로 조이스는 장애인들이 홍등가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장애인들은 신체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편견을 보여준다. 또한 만일 그들이 홍등가에서 태어나서 자랐다면, 그들의 존재는 홍등가의 문란한 성행위의 산물이다. 원치 않는 임신과 환영받지 못하는 출산의 결과로서 홍등가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영양실조와 정신적 신체적 학대로 정상적인 발육상태를 보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홍등가에 거주하는 장애인처럼 조이스는 신체기형을 행동거지와 관련짓는 글 쓰기를 한다. 조이스는 피노키오 이야기를 차용하여, 블룸이 거짓말을 하자 “당나귀의 귀를 가진 자”(U 15.1885)가 되게 한다. 이 장면은 홍등가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홍등가와 장애의 연관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킨다. 『율리시스』 다른 장에도 장애는 부도덕한 사람을 상징하기 위해 사용된다. 『아이올로스』(“Aeolus”) 장에서 아일랜드 사람들은 영국의 넬슨(Nelson)장군 동상을 보고 그를 “외팔의 간통자”(U 7.1072)라 부른다. 외팔을 가진 사람은 정상인과 달라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암시한다. 영국과 아일랜드의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도 영국 사람들은 아일랜드 사람의 행동거지와 장애를 연관 지었다. 영국 사람들은 영국 지배를 거부한 아일랜드 사람들을 문제가 취급하여, 처음에는 “야생적인 아일랜드 소녀, 병든 자매, 또는 병든 환자”로 부르다가 나중에는 “장애인” 취급을 하였다(Mossman 15). 또한 영국 신문에 흔히 등장하는 아일랜드를 상징하는 인물인 패디(Paddy)는 “원숭이 얼굴과 꾸부정한 등”을 가진 것으로 흔히 묘사되었다(Quayson 39). 이러한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조이스는 장애를 가진 인물을 부도덕한 인물로 보는 당대에 유행한 장애담론의 영향을 받아 『율리시스』를 썼음을 알 수 있다.

III. 남성과 장애

조이스가 남성 장애인을 묘사하는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 남성 장애인들의 장애 부위가 마치 그들의 정체성인양 반복적으로 언급된다. 그들은 외달이 수병

(onelegged sailor), 귀머거리 패트(deaf Pat), 장님소년(blind stripling)으로 반복해서 언급된다. “장애인에게는 생물학적 차이가 억압의 일부”이기에 이러한 재현방법은 장애인을 웃음거리로 만든다(Abberley 24). 이러한 묘사방식은 이들을 장애인으로 생각하지 다양한 개인적 특징을 가진 인간으로 보지 못하게 한다. 그렇지만 이들 남자 장애인들은 정도는 다르지만 모두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작품에서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 이러한 묘사를 통해 조이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에 도전한다. 즉, 장애인들도 경제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외달이 수병은 구걸을 하고 다니지만 장애인이 직업을 가지기 힘든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어찌할 수 없는 선택이다. 그는 전쟁에 참여한 이력을 내세우며 사람들의 동정에 호소한다.

정신 장애인 파렐의 경우에는 등장할 때마다 그의 특이하게도 긴 이름인 “Cashel Boyle O’Connor Fitzmaurice Tisdall Farrell”이 사용된다. 이것은 그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인상을 준다. 그렇지만 그는 긍정적으로 묘사된다. 그는 이 작품에서 항상 걷는 모습으로 등장한다. 블룸이 “파렐처럼 걷자”(U 11.1124-25)라고 말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파렐은 긍정적인 요소를 지닌 인물이다. 또한 파렐은 흔히 묘사되는 장애인의 모습인 다른 사람들이 노려보는 객체가 아니라 상대방을 “노려보는”(U 10.1261) 주체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조이스는 잠깐 등장하는 외달이 수병과 파렐과 달리, 시각 장애인인 피아노 조율사와 청각 장애인인 패트를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이들이 피아노 조율사와 웨이터로서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는 성공한 장애자로 볼 수 있다. 특히, 패트는 “기다리는 아내와 가족”(U 11.1003)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장애인은 결혼을 하여 가정을 꾸리기가 힘든 현실을 고려해 본다면, 패트는 성공한 장애인이다. 조이스는 이들을 통해 남성 장애인의 삶을 조명하고자 했다. 이 두 사람은 조이스의 유색인종이나 여성 묘사처럼, 편견의 시각으로 묘사되기도 하고 이러한 편견에 도전하는 시각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조이스는 이 두 사람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장애인의 스테레오타입을 사용한다. 피아노 조율사는 『레스트리고니아 사람들』(“Lestrygonians”) 장과 『사이렌』 장에서 타자(the other)로 제시된다. 그는 특이한 모습을 가진 자로 응시의 대상이고 동정의 대상으로 그려진다. 그의 얼굴은 “벽처럼 평평하여”(U 8.1078) 개성이 없

고, 그는 “아기 손”(U 8.1097)을 가진 어린아이 같고, “이름이 없을 수도 있는”(U 8.1097-99) 기인한 인물이다. 또한 그는 “신부가 되려는 사람처럼 핏기 없는 경건한 얼굴”(U 8.1112-3)의 소유자이다. 장애인을 성직자와 연결하는 것은 장애인이 성직자처럼 성적인 흥미와 욕망이 없을 거라는 편견을 담고 있다. 조이스를 대변하는 인물인 블룸(Bloom)은 이와 같이 스테레오타입으로 시각장애인을 바라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시각장애인을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차이가 없음을 보이면서 그러한 편견에 도전한다.

피아노 조율사는 “목소리”(U 8.1102)로 성별을 구별할 수 있고, 트럭이 있는지 “느낌”(U 8.1108)으로 알 수 있고,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많은 일을 할 수 있음을 블룸은 말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블룸은 “불구자나 곱사등이가 우리가 말하는 무언가를 말하면 영리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U 8.1116-17) 의문을 제기한다. 조이스는 “같은 행동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했을 때 다른 사회적 의미”를 지닌 것으로 해석하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지적하고 있다 (Abberley 30 재인용). 그리고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다른 감각은 더 낫지”(U 8.1118), “후각도 더 강하지”(U 8.1121)라고 말하면서 장애인/비장애인을 정상/비정상적으로 나누는 사회 관념에 도전한다.

블룸은 “불쌍한 녀석! 아직 애인테”(U 8.1144)라고 피아노 조율사를 동정의 시선으로 보지만, 조이스는 사람들이 장애인을 연민의 대상으로 보는 것에 도전하기 위해 소년을 강한 성격의 소유자로 묘사한다. 즉, 「떠도는 바위들」 (“Wandering Rocks”) 장에서 파렐이 길을 가다가 피아노 조율사를 살짝 부딪히자, 그는 파렐에게 맹렬하게 욕을 퍼붓는다: “누군지 모르지만 신의 저주를 받아라! 나보다 더 눈이 멀었군, 망할 자식!”(U 10.1119-20).

「사이렌」 장에는 피아노 조율사와 웨이트 패트 두 사람이 다 등장한다. 먼저, 서술자가 피아노 조율사를 묘사하는 장면은 그가 시각 장애인임을 부각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가령, 그는 아무것도 볼 수 없다는 문장이 반복적으로 사용되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애송이 소년이 문간에 섰다. 그는 청동빛 머리칼을 보지 못했다. 그는 금빛 머리칼을 보지 못했다. 벤도 붉도 톱도 사이도 조지도 큰 유리 잔도 리치도 패트도 못 봤다. 히 히 히 히. 그는 보지 않았다.

시블룸, 그리시블룸이 최후의 말을 보았다. 조용히. 내 나라가 세상에서 지위

를 갖게 될 때. (U 11.1281-85)

특히, 서술자는 “히 히 히 히”(Hee hee hee hee)라는 장님을 비웃는 듯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세상의 편견을 잘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시블룸, 그리시블룸”(Seabloom, greasebloom)에 나타난 것처럼, 바의 여직원이 블룸을 표현한 말인 “greasy”(U 11.169; 173)를 사용해 “greasebloom”을 만들고, 다시 여기서 “seabloom”을 떼어내서 ‘블룸은 본다’라는 ‘see Bloom’을 연상하게 하는 말장난을 통해 맹인은 볼 수 없음을 강조한다. 시각 장애인에 대한 이러한 묘사는 “노려봄”(stare)에 해당하는 것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편견의 시선이다(Davis 501).

조이스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의 시선의 존재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런 시각을 전복하는 글쓰기를 한다. 피아노 조율사의 시각장애는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그는 라이오넬 막스(Lionel Marks) 상점 창가에 있는 에멧(Emmet)의 초상과 (위 인용문에 제시된) 그의 마지막 말을 볼 수 없어서 민족주의에 대한 감상에 젖지 않는다. 조이스는 이런 메시지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에 도전한다. 오히려 오먼드 홀에 있는 술꾼들이 마비에 빠진 사람으로 조이스의 비난의 대상이 된다. 그들은 애국적인 노래를 듣고 감상주의에 빠진다. 노래 속에 등장하는 크라피 보이와 같은 애국자는 이 장 끝에서 에멧으로 구체화된다. 그들은 애국자를 생각하면서 감상주의에 젖어 그들 고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 조이스는 이것을 한 사람의 이름의 일부분이 다른 사람의 이름의 일부분과 합쳐지는 것으로 표현한다. 예를 들어, “Siopold”(U 11.752)는 Simon과 Leopold가 합쳐진 것이다.

또한 앞서 II절에서 설명하였던 오먼드 홀에 들어가는 피아노 조율사와 홀에 들어가는 크라피 보이를 병치시키는 기법을 통해 조이스는 전복적인 메시지를 전한다. 조이스는 민족주의자인 크라피 보이를 장님과 병치시키면서 민족주의자가 ‘blind’임을 암시하면서 맹목적인 민족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조이스는 크라피 보이뿐만 아니라 오먼드 홀에서 애국자를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듣고 있는 술꾼들도 맹목적인 민족주의를 신봉하는 ‘blind’ 상태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논리를 통해 조이스는 장애/비장애의 이분법을 거부한다. 겉으로는 장애인인 아니지만 하는 행동은 장애인과 차이가 없다. 『키클롭스』 장애 등장하는 시티즌도 같은 시각에서 볼 수 있다. 맹목적인 민족주의자인 시티즌은 두 눈을 가지고 있지만 한

눈을 가진 자처럼 묘사된다. 조이스는 오딧세이 신화에 나오는 키클롭스를 시터즌과 병치시켜 이러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사이렌」장에 등장하는 청각 장애인 패트는 피아노 조율사와 비슷하게 묘사되어 있고 비슷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는 등장할 때마다 청각 장애자임이 강조되어 제시된다. 그를 묘사할 때는 “deaf” 등 청각장애가 있음을 나타내는 단어가 반복되어 사용되고, 다른 사람들은 귀머거리가 아님이 강조된다.

귀머거리며 대머리인 패트는 패드를 가져와 칼을 집었다. (U 11.30)

패트! 듣지 못하는군. 그는 딱정벌레처럼 귀가 먹었어. (U 11.911)

패트는 청각에 문제가 있는 웨이터이다. (U 11.915-16)

그에게 2펜스 팁을 주라. 귀머거리이면서 성가신 체. 그런데 그는 기다리는 아내와 가족이 있을 거야, 패티가 집에 오길 기다리는. 히 히 히 히.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 귀머거리는 시중을 든다. (U 11.1002-04)

귀를 기울여라. 블룸은 귀를 기울였다. 리치 콜딩은 귀를 기울였다. 문 옆에서 귀머거리 패트, 대머리인 패트, 팁을 받은 패트가 귀를 기울였다. (U 11.1028-29)

문간에 있는 귀머거리 패트 옆을 귀 기울이는 블룸이 지나갔다. (U 11.1130)

위 예를 통해 조이스의 청각 장애인 묘사는 편견의 언어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히 히 히 히”(Hee hee hee hee)라는 웃음소리는 피아노 조율사의 경우처럼 그의 신체적 장애를 조롱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그리고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 귀머거리는 시중을 든다”(Deaf wait while they wait)에서처럼 Deaf가 패트 대신에 주어로 사용된다. 패트의 개인적인 특성은 일절 무시되고 장애가 그를 대변하는 것 같다. 다른 한편으로 조이스는 장애/비장애의 이분법을 거부하기 위해 패트의 긍정적인 면을 보여준다. 오먼드 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음악에 도취되어 감상주의에 젖어 있을 때, 들을 수 없는 그는 이러한 영향력에서 벗어난다. 감상주의는 영국인이 아일랜드 사람을 묘사할 때 사용한 스테레오타입이다. 감상주의는 흔히 “아일랜드인의 특징 중에서 그들의 정치적 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 가장 나쁘게 작용하였다”(Curtis 54). 바의 술꾼들은 애국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감상주의에 젖어 있는 모습은 그들의 정치적 무능을 보여준다.

IV. 여성과 장애

여성 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의 의미가 남성 장애인과 다르다. 『나우시카』장에서 조이스는 거티를 제시하는 데 있어서 남성 장애인과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다음 장면에서처럼 블룸은 거티의 장애를 알게 되어서 깜짝 놀란다.

신발이 작나? 아니야. 그녀는 절름발이야! 오!

블룸씨는 그녀가 절뚝거리며 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불쌍한 여자! . . . (U 11.771-72)

남성장애인을 묘사할 때 조이스는 등장하는 순간부터 장애부위를 말할 정도로 처음부터 장애인임을 밝힌다. 반면에 거티의 경우에는 블룸이 거티를 보면서 자위 행위를 마칠 때까지는 그녀가 장애인인지 기술하지 않는다. 비록 장애를 연상시키는 암시가 이미 있기는 하지만, 처음 이 작품을 읽는 독자는 이를 통해 그녀가 장애인임을 짐작할 수 없다. 즉, 조이스는 거티가 장애인인지 숨기다가 나중에 밝히는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퀘이션의 장애 유형분류에 따르면 이는 “에피파니로서의 장애”에 해당한다(42-45).

이러한 갑작스런 정신적인 깨달음의 순간은 이제까지 그녀에 대한 (블룸 및 독자의) 생각이 환상에 불과함을 보여준다. 이 장면 이전에 거티는 자신의 장애를 철저히 숨겨 블룸과 독자는 다른 관점에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거티의 장애를 알자마자 블룸은 “하나의 결점이 여자에게 열 배 더 나쁘지”(U 13.774-75)라고 말한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장애는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큰 결점으로 작용한다. 장애여성은 장애남성보다 사회적으로 “더 고립되고, 결혼할 확률이 더 낮고, 결혼을 해도 이혼할 확률이 더 높다”(Hanna and Rogovsky 40).

독자는 거티의 장애를 인식하고 읽을 때와 이 사실을 모르고 읽을 때 텍스트를 전혀 다르게 읽게 된다. 거티의 관점에서 서술되는 전반부에서 거티는 “아름다운 아일랜드 여성의 전형”(U 13.80-81)이며, “좋은 교육”(U 13.100)을 받고 “높은 신분의 귀부인”(U 13.99)으로 태어났다면 가장 멋진 여성으로 대우받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심지어 장애를 갖고 있는 그녀의 발도 멋지게 묘사된다: “에디 보드맨 (Edy Boardman)도 거티와 같은 발을 갖지 않았다”(U 13.166); “그녀의 곡선의 발

목은 치마 밑으로 완벽한 비율을 보였다”(U 13.68-69). 그녀의 장애를 알고 있는 독자는 이러한 전반부의 묘사가 사실과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게 된다. 프렌치(Marilyn French)가 주장하듯이, “감추는 것이 이 장 전반부의 주된 기법이다”(158). 이 장의 서술기법처럼, 거티는 그녀의 장애를 감추려 한다. 즉, 그녀는 “한 가지 결점[장애]이 없다면 경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것을 항상 감추려했다”(U 13.649-51). 장애를 숨기는 것이 그녀의 생존전략인 셈이다.

장애 여성은 “성차별뿐만 아니라 장애인 차별”을 받아 “이중의 차별”을 받는다. 이러한 차별 때문에 장애여성은 “무력하고, 의존적이며 성적 관심이 없는 사람”으로 “사회에서 성인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Kaufman-Scarborough 275).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은 사회에서 돌보는 사람”(어머니, 아내, 섹스 파트너)의 역할을 맡는다(Hanna & Rogovsky 43). 그리고 장애여성에 대해서는 “의존적이고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어서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진다(Hanna & Rogovsky 43).

거티는 장애여성에 대한 이러한 편견을 인식하고 있기에 사회가 요구하는 여성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가령, 그녀는 돌보는 사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그녀는 “남자들이란 가정적인 기분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의식주면에서 [블룸]을 정성껏 돌보아 줄 것이다”(U 13.222-24)라고 생각한다. 또한 거티는 “집안에서는 제2의 어머니와 같은 존재로, 간호하는 천사”(U 13.325-26)로 자신을 정의한다. 그러나 거티의 아이들에 대한 태도를 볼 때 이것이 사실인지 의문을 갖게 된다. 그녀는 시시(Cissy)와 달리 아이들을 돌보지 않는다. 울부짖는 애들을 얼른 데려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돌볼 생각은 하지 않는다. 그녀가 블룸에게 정신이 팔려 일시적으로 아이들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나우시카』 장에서는 돌보는 사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중 하나는 성적인 면이 없다는 점이다. 조이스는 이러한 편견에 도전하기 위해 거티가 성적인 흥미와 매력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그녀는 레기 와일러(Reggy Wylie)와의 인연을 이야기하면서 그와 같은 남성과 사귀고 결혼하고 싶어 한다. 그녀는 블룸에게 성적인 매력이 있는 여성이기에 그는 그녀를 보면서 자위행위를 한다. 거티가 속옷을 노출하는 장면은 유혹녀

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다. 겉으로는 불꽃을 보기위해 속옷을 노출하나 거티는 신사가 “그녀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U 13.726)고도 그런 행동을 한다.

흔히 “여성다운 여성은 응시(gaze)를 유발하고 장애는 노려봄(stare)을 자극한다”고 말한다(Thomson 27). 거티의 장애를 모르고 있는 블룸은 그녀를 여성다운 여성으로 본다. 그러면 블룸이 그녀의 장애를 인식한 후에는 어떻게 될까? 블룸은 거티의 장애를 알고 처음에는 “불쌍한 여자”(U 13.772)라고 동정을 표하나 노려봄의 대상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그녀를 “여전히 화끈한 소녀”(U 13.776)로, “참으로 매력적인”(U 13.1085) 여성으로 기억한다. 베드나스카가 지적하듯이, 블룸은 거티의 장애를 알고서 처음에는 전통적인 입장을 취하다가 “재빨리 생각을 전환한다”(75). 장애인 여성은 성적인 매력이 없다는 흔한 편견과 달리, 조이스는 거티를 성적으로 매력적인 여성으로 묘사하면서, 여성 장애인에 대한 편견에 도전하고 있다.

여기서 블룸과 거티의 관계를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거티는 블룸의 성적인 대상으로만 묘사되어 있지 않다. 그녀가 장애인임을 보이기 전에 그녀는 블룸과 대등한 관계에서 상호응시를 주고받는다. 멋진 신사인 블룸도 거티의 응시의 대상이다. 네메섹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블룸보다는 거티가 “더욱 정확하게 상대방에 대해 파악한다”고 말한다(186). 또한 성적인 면에서 블룸뿐만 아니라 거티도 “성적인 만족”을 경험한다(Bednarska 77).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거티의 결점인 장애가 있는 다리가 “블룸의 성적인 흥분과 그녀의 오르가즘을 위해 사용된다”는 점이다(Nemecek 179). 네메섹이 지적하듯이, 결점(shortcoming)이란 단어는 조이스의 말장난으로 거티의 “육체적 장애와 성적기쁨”을 동시에 의미한다(180).

「나우시카」장 후반부는 블룸의 의식의 흐름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이런 서술방식은 남성이 장애인 여성을 일방적으로 노려보고 정체성을 정의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장의 마지막 장면은 블룸의 의식이 아니라 거티의 관점으로 마무리 된다. “그녀는 바위에 앉아 자신을 보고 있는 저 외국 신사가 뼈꾸기임을 단번에 알아차렸다”(U 13.1301-04). 뼈꾸기(cuckoo)는 기포드와 세이드만이 지적하듯이, “오쟁이진 남편”(cuckold)을 상기시킨다(249). 블룸은 아내와 정상적인 성관계를 가질 수 없다. 블룸의 의식에서 벗어난 마지막 장면은 거티가 블룸의 문제(성적 장애)를 짐작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거티의 단점에 상응하는

블룸의 단점을 통해 남성이 여성 장애인을 일방적으로 노려보는 관점이 거부된다. 조이스는 여성 장애인에게 말할 수 있는 권리를 마지막 순간에 부여하고 있다.

블룸은 거티와 달리 경제활동에 참가하지만, 그래도 그녀와 공통점이 많다. 이 장에서 두 사람의 교감을 표현한 것은 두 사람 사이에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외롭다. 거티는 다른 소녀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있고, 블룸은 하루 종일 다른 사람으로부터 소외된 생활을 했다. “개인의 고립은 장애인의 삶의 가장 두드러진 요소”이다(Mitchell and Snyder 19). 블룸의 소외는 인종적인 원인 뿐만 아니라 정상이라고 간주하는 성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키클롭스』 장에서 술꾼들은 이 두 가지를 언급하면서 블룸을 조롱한다. 장애의 성격은 다르지만 두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두 사람이 교감하는 장을 만든다. 거티의 장애는 보이는 장애지만, 블룸의 장애는 사적인 은밀한 것이다. 두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다르다. 자위행위를 하면서 남성성을 과시하는 블룸은 성적 인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아내와 성적 인 문제가 있다. 거티는 장애인으로서 성적 인 관심이 없다고 흔히 생각되는데, 이 장에서 그녀는 성적 인 매력과 관심이 있다는 점에서 장애인의 스테레오타입과 전혀 다르다. 조이스는 이를 통해 누구나 다 장애를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찍은 낙인은 실제와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V. 결론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많은 장애인이 등장하는 『율리시스』는 장애학적 관점에서 읽기 적합한 소설이다. 조이스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이 편견을 거부하는 메시지를 동시에 담고 있다. 그는 맹목적인 민족주의자를 거부하기 위해서 시각장애인의 이미지를 사용한다. 이는 작가들이 도덕적 결함의 상징으로서 장애자를 등장시키는 기법과 유사하다. 그러나 조이스는 이 기법을 사용하면서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전복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비장애인에게 장애인의 이미지를 부여하여 장애/비장애, 정상/비정상의 이분법에 도전하는 글쓰기를 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조이스는 장애인이 사회에서 얼마나 힘든 삶을 영위하고 있는지 의식하고 글쓰기 하는 작가임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조이스는 인종 및 젠더 관점에

서 해방을 추구하는 작가로 알려졌는데 장애의 관점에서도 그러함을 알 수 있었다.

조이스는 남성 장애인과 여성 장애인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 피아노 조율사와 패트의 경우처럼, 남성 장애인들의 장애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들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표현법이 반복해서 등장하지만, 그래도 그들은 사회에 기여하는 적극적인 인물로 등장한다. 반면에 여성 장애인은 거티의 경우처럼 남성 장애인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아간다. 여성과 장애인이라는 이중의 차별 때문에 여성 장애인은 일자리를 구하기도, 결혼을 하기도 힘들다. 조이스는 여성 장애인에 대한 편견어린 시각에 도전하기 위해 거티를 성적으로 매력 있는 인물로 제시하고 있다.

조이스는 시각장애나 청각장애와 같은 장애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여 전복적인 의미를 전달하고 있지만 그의 글쓰기에는 한계도 있다. 장애는 인종, 젠더와 같은 다른 소수집단의 정체성 문제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장애에 어떠한 긍정적인 의미를 준다고 해도 장애는 육체의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로 남는다 (Mitchell and Snyder 35). 영국인으로부터 경멸의 대상이 된 아일랜드 사람의 정체성이나, 이성애자가 다수인 사회에서 동성애자의 정체성과 같은 소수집단의 정체성은, 그 자체가 자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장애는 그렇지 않다. 조이스가 장애인에게 힘을 부여하는 글쓰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장애 자체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지는 않는다. 장애가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문학 작품에서는 가능하지 현실에서는 실현되기 힘들다. 그렇지만 조이스가 장애자를 차별하는 것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 자체는 높이 평가해야 한다. 특히 누구나 다 장애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조이스의 통찰력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고려대)

인용문헌

- Abberley, Paul. "The Concept of Oppression and the Development of a Social Theory of Disability." *Overcoming Disabling Barriers: 18 Years of Disability and Society*. Ed. Len Barton. London. New York: Routledge, 2006. 21-36.
- Anolik, Ruth Bienstock. *Demons of the Body and Mind: Essays on Disability in Gothic Literature*. Jefferson: McFarland & Company, Inc., Publishers, 2010.
- Barnes, Colin and Carol Thomas, "Introduction." *Overcoming Disabling Barriers: 18 Years of Disability and Society*. Ed. Len Barton. London; New York: Routledge, 2006. 3-6.
- Bednarska, Dominika. "A Crippled Erotic: Gender and Disability in James Joyce's 'Nausicaa.'" *JJQ* 49 (Fall 2011): 73-89.
- Curtis, L. P., Jr. *Anglo-Saxons and Celts: A Study of Anti-Irish Prejudice in Victorian England*. Connecticut: U of Bridgeport, 1968.
- Davis, Lennard J. "Crips Strike Back: The Rise of Disability Studies." *American Literary History* 11.3 (Autumn 1999): 500-12.
- French, Marilyn. *The Book as World: James Joyce's Ulysses*. Cambridge: Harvard UP, 1977.
- Gifford, Don & Robert J. Seidman. *Ulysses Annotated: Notes for James Joyce's Ulysses*. Berkeley and LA: U of California P, 1988.
- Hagood, Taylor. *Faulkner, Writer of Disability*. Baton Rouge: Louisiana State UP, 2014.
- Hall, Alice. *Disability and Modern Fiction: Faulkner, Morrison, Coetzee and the Nobel Prize for Literature*. Basingstoke: Palgrave Macmillan, 2012.
- Hanna, William John and Betsy Rogovsky. "Women with Disabilities: Two Handicaps Plus." *Overcoming Disabling Barriers: 18 Years of Disability and Society*. Ed. Len Barton. London; New York: Routledge, 2006. 37-52.
- Heyman, Bob, Brian Bella, Michael R. Kinghama and Elizabeth C. Handyside. "Social Class and the Prevalence of Handicapping Conditions." *Disability*,

Handicap & Society 5 (1990): 167-84.

Joyce, James. *Dubliners*. Harmondsworth: Penguin Books, 2000.

_____.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Harmondsworth: Penguin Books, 2000.

_____. *Ulysses*. Ed. Hans Walter Gabler with Wolfhard Steppe and Claus Melchior.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86. Abbreviated as *U*.

Kaufman-Scarborough, Carol. "Integrating Consumer Disabilities into Models of Information Processing." *Gendering Disability*. Ed. Bonnie G. Smith and Beth Hutchinson. New Brunswick and London: Rutgers UP, 272-85.

Mitchell, David T. and Sharon L. Snyder. *Narrative Prosthesis: Disability and the Dependencies of Discourse*. Ann Arbor: U of Michigan P, 2000.

Mossman, Mark. *Disability, Representation and the Body in Irish Writing, 1800-1922*. Basingstoke: Palgrave Macmillan, 2009.

Nemecek, Angela. "Reading the Disabled Woman: Gerty MacDowell and the Stigmaphilic Space of 'Nausicaa.'" *Joyce Studies Annual 2010*: 173-202.

Pearman, Tory Vandeventer. *Women and Disability in Medieval Literature*. Basingstoke: Palgrave Macmillan, 2010.

Quayson, Ato. *Aesthetic Nervousness: Disability and the Crisis of Representation*. New York: Columbia UP, 2007.

Thomson, Rosemarie Garland. *Extraordinary Bodies: Figuring Physical Disability in American Culture and Literature*. New York: Columbia UP, 1997.

Abstract

Joyce and the Disabled: Reading *Ulysses* from the Perspective of Disability Studies

Seokmoo Choi

In the study of Joyce, his views on the disabled have been generally neglected even though there are relatively many disabled characters throughout his works. In *Ulysses*, Joyce's representation of the disabled is both complicit and critical of the cultural stereotypes. Joyce often uses disability metaphorically, pointing out fundamental flaws in immoral or biased people's character. Though his method of representation of the disabled is sometimes stereotypical, he still conveys subversive messages. Joyce demonstrates that there are no differences between disabled and non-disabled people by depicting non-disabled people as metaphorically disabled. Furthermore, the disabilities of the disabled work positively, helping them escape from the baleful influence of blind nationalism. Joyce vividly depicts how male and female people with disability are treated differently in Ireland at the turn of the century. For instance, male characters with disabilities, such as Pat and the piano tuner, have their own jobs, while Girty seems a jobless girl who is immersed in daydreaming. As shown in the case of Girty, disability is more detrimental to women than men.

■ **Key words** : James Joyce, *Ulysses*, disability studies, disability, normality, abnormality

(제임스 조이스, 『율리시스』, 장애학, 장애, 정상, 비정상)

논문접수: 2015년 6월 5일

논문심사: 2015년 6월 5일

게재확정: 2015년 5월 25일